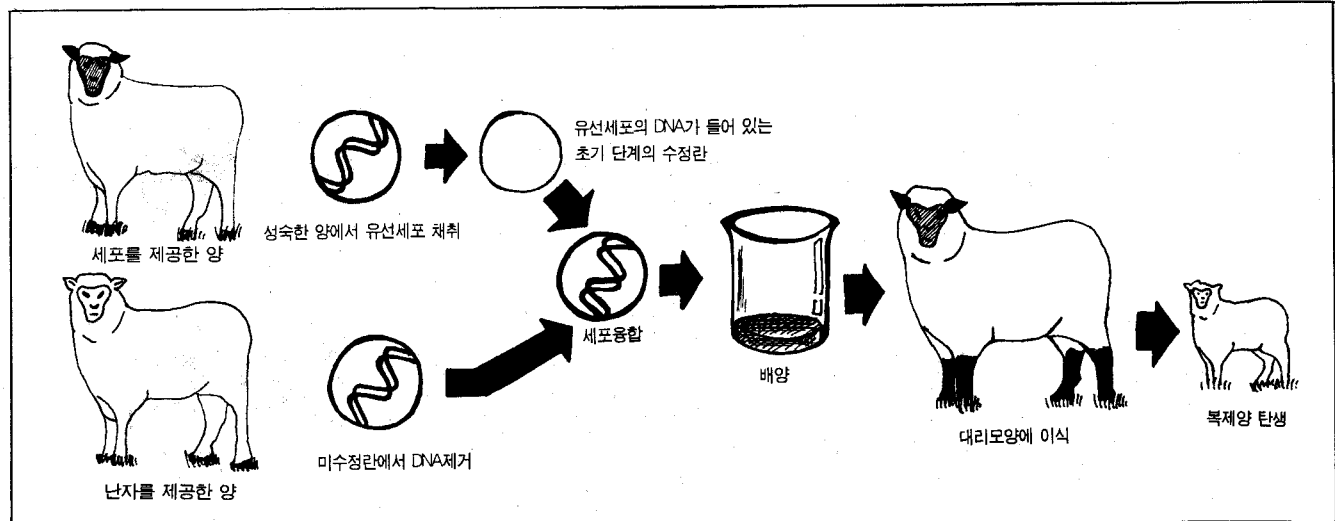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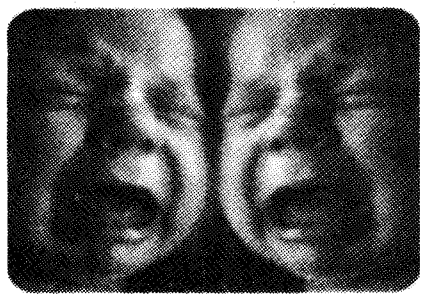




인의 독점분야가 아니다. 비종교적 견해는 인간존엄성을 도덕성, 합리성, 자의식 등에서 찾는다. 특정 종교관을 수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과연 인간복제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복제인간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인간과 위에서 열거한 속성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단지 태어난 과정만 다를 뿐이다. 물론 종교계에서는 탄생과정을 문제삼는다. 양성생식, 즉 남녀의 결합을 통해 탄생해야만 제대로 된 인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득



력이 없다. 인간복제를 경계하는 두 번째 입장은 종교적 입장과 달리 인간복제가 가져올 지도 모를 현실적인 문제, 특히 기존질서와의 상충 가능성에 주목한다. 인간복제는 기존의 가족, 사회 관계를 전도 또는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수용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제인간이라고 해서 다 자란 성인을 주

행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모체를 필요로 한다. 즉 복제인간도 회임-출생-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가족, 사회 관계는 출생 순서를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나의 복제인간이 내 아내의 자궁을 통해 출생한다면 내 자식은 나와 형제간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복제인간이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예컨대 처제나 형수로 부터 탄생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와 같은 염려는 우선 복제인간과 세포를 제공한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기인한다. 우리를 자아

의 동일성은 유전정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자아의 정체성을 떠난다는 것은 정

만든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복제인간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 가족관계의 보완 필요에 기인한다.

복제인간은 나의 유전정보를 1백% 공유한다는 점에 있어 자식이나 형제와 다르다. 이들과는 기껏해야 50% 이상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 자식간의 사랑이나 친족애가 유전자 공유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면, 복제인간의 등장은 기존의 가족관계에 변화를 요구할 것임에 틀림없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나의 복제인간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부모-자식 중심의 가족질서에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곧 원인의 제거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핵가족의 등장은 대가족제도에 혼란을 가져왔다. 그렇다고 핵가족제도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가 바람직하다면 구체적인 수정이나 폐기가 정당화된다. 과연 인간복제가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지는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려 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인간복제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인간복제가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앙을 염려한다. 이들은 인간복제기술이 핵융합 기술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핵분열 기술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지도 모르는 핵폭탄을 가져왔듯이 인간복제기술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하다면 인간복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복제의 남용과 오용이지 인간복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흔히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환경문제와 빈부격차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과학기술과 산업 발달이 잘못된 것인가? 비록 핵폭탄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핵폭탄을 만들어낸 것도 과학자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핵폭탄을 들어 핵기술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가의 잘못을 과학자에게 떠넘기는 처사처럼 보인다. 인간복제가 아니라 그 오용이 문제라면, 인간복제를 금지시키기보다는 오용이나 남용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물론 방지책 정도도 안심할 수 없을 만큼 큰 재앙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나 금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복제의 경우에는 핵전쟁처럼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재앙이 결과물 것이라고 확실하기 어렵다. 모든 과학기술이 그렇듯 인간복제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기능이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채 가능해 보기도 전에 인간복제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노예제도, 남녀차별, 인종차별이 전통적인 가치관의 주류를 형성할 때도 있었다. 인간복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기존의 가치관에 의한 판단일 뿐이다.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대두되자마자 나타나지 않았던 인간복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듯하다. 비록 사회적으로 먹당하는 인사들의 판단이라 해도 우리가 이들의 가치관을 수용해야 하는 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기존의 가치관은 사람들이 가치에 대해, 즉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해 가져 온 견해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기존의 가치관에 의한 평가가 항상 옳다고 확신할 수 없다. 노예제도, 남녀차별, 인종차별이 전통적인 가치관의 주류를 형성했던 때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옳음과 그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고 이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고찰 후에 내리는 최종적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슈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그것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신중해야 함을 요청한다. 정리하면, 인간복제 문제를 인간의 존엄성을 운운함으로써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단언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우리는 인간복제가 가져 올 수 있는 다양한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도대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재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수행한다 해도 복제인간은 아직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 연 교
(철학과 교수)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1절 천지를 창조하여... 신인류 창세기 1장1절

복제, 금단의 열매인가?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종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와 일부 과학자들조차 인간복제가 가져올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인간복제 실험을 금지하는 지침을 곧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주로 복제기술이 가져올 지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결과 때문에 염려하는 반면 종교인들은 "신의 영역"인 생명창조에 인간이 개입한다는 사실 자체를 혐오한다.

인간복제 논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복제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인간복제를 통해 복제된 사람은 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외모와 같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형질에 있어서는 유사할지 몰라도 성장환경에 영향을 받는 형질, 특히 의식상태에 있어서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동물의 경우에도 복제동물이 환경에 따라 성장속도를 비롯한 특정 유전자의 발현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란성 쌍생아가 대체로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남에도 제각기 다른 성격과 능력을 지닌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마디로 아인슈타인

을 복제한다 해도 훌륭한 학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결국 복제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개체일 뿐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인간복제 반대 입장이 기초하는 논거에 대해 검토해 보자.

인간복제 반대 입장에서 하나는 종교적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기독교에서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신에 의해 신의 모습을 따라 유일회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 찾는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종교인들은 대체로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신에서 찾는다. 그러나 인간존엄성의 근거에 대한 논의는 종교

EPSON Stylus Color 500

PC MAGAZINE EDITOR'S CHOICE

Model	Price	Resolution	Print Speed	Print Quality	Software	Warranty
Canon BJC-4200	\$280	7.5 x 15.1 x 11.5	7.0	4	Adobe PhotoDeluxe, Sierra Print Artist	1-9:00, 7 days, 1 year
Epson Stylus Color 500	\$299	7.5 x 17.0 x 9.8	11.0	4	Adobe PhotoDeluxe, Sierra Print Artist	9:00-9:00, 7 days, 2 years
Epson Stylus Color Pro	\$380	7.5 x 19.0 x 20.9	16.5	4	Adobe PhotoDeluxe, Sierra Print Artist	9:00 A.M. - midnight M-F, 1 year
HP DeskJet 400	\$249	13.7 x 6.4 x 7.0	6.6	3	None	8:00 A.M. - midnight M-F, 1 year
HP DeskJet 500	\$300	7.9 x 17.2 x 16.0	14.3	3	U.I. 3, Mickey & Friends Print Studio	8:00 A.M. - midnight M-F, 1 year

printer: You can get great output at relatively slow speeds or good output at average speeds. For example, printing speed was good but not outstanding on application tests in default 360-dpi mode, but the times slowed when the Stylus Color 500 was run in the 720-dpi mode that produced the terrific output.

The Stylus Color Pro is unique in its ability to print at 720 dpi on plain paper,

TRIGem

“PC매거진의 눈을 사로잡았다!”

美PC매거진 선정 최우수 칼라 프린터 -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 500H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500H가 세계적인 PC전문지 미국의 'PC매거진'이 실시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개인용 잉크젯 프린터 부문 최고의 프린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출력속도, 선명도, 호환성, 경제성, 편리성을 비롯, 구입 후 고객지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고 정확한 비교 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는 프린터로 선정된 스타일러스 칼라 500H-이제, 잉크젯 프린터도 세계가 인정한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 프린터입니다.

● 스타일러스 500H

● 스타일러스 200H

비교할수록 믿음이 가는 컬러프린터 -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 500H/200H

- 마이크로 미터 해상도 720 DPI 초해상도(500H)
- 최대 48PPM, 월리 1.5PPM의 고속 출력(500H)
- 16700의 True color의 색 표현
- 국내 최대의 잉크탱크로, 저렴한 유지비
- 메트와 카트리지 분리로 카트리지 교체 용이
- 윈도우, DOS에, 매킨토시용 접속 가능
- 한글 오프셋, 리모트 프로그래밍 지원
- 애플리케이션 KS, KMS+

무엇보다도 고객지원

대체할 수 없는 PC매거진에 오를만큼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 500H는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위치를 통한 컴퓨터 교육 및 서비스를 위한 삼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65일, 24시간 One Call 서비스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구입장소에 관계없이 전화 한통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삼보의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02-365-3535 전국: 080-535-3535

직접 방문수리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구입장소에 관계없이 전화 한통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삼보의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02-365-3535 전국: 080-535-3535